

# 상반기 실업급여 36만명 신청

전년동기보다 13% 증가…반기별 사상 최대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제 이용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가 36여만명에 달하면서 반기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36만 3천438명으로 작년 동기의 32만 1천501명에 비해 13%(4만 1천997명) 가량 증가했다.

김재철 유치위원장, 가봉 외무장관 만나

阿국 여수엑스포 지지 당부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위원 회의 김재철 위원장은 지난 11일 가봉공화국의 장관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여수 개최지지율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장관 부총리 겸 외무장관 등을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여수엑스포에 참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참가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면세혜택을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이 날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던 가봉공화국의 봉고·온디파 대통령은 파로증세를 보여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장관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봉고·온디파 대통령은 종서부 아프리카 지역 분쟁 중재자로서의 공로를 인정 받아 '만해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돼 방한중이다.

LG경제研, 100대부자 비교

중국 100대 부자의 재산은 우리나라 100대 부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중국부자들 보면 중국 경제가 보인다'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100대 부자를 비교한 결과 평균재산은 중국 부자가 8천319억원으로 3천764억원인 한국 100대 부자에 비해 2.2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97년에는 5만 991명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3만 8천 465명으로 급증한 뒤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4년 47만 1천542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5년 56만 5천753명, 2006년 61만 2천667명을 기록하며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25.9%를 차지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청년층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의 2배를 웃도는 7%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취업난으로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취업한 청년층이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로 직장을 자주 뜯기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30대 29.7%, 40대 22.0%, 50대 16.4%, 60대 6.0% 등의 비중을 보였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항공사업자 지원 조례 만든다

오는 11월 개항 예정인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항공사업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전남도는 개항 초기 무안국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국제선 항공편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운항손실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이 조례에는 국제공항 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및 공항 시설 사용료 등 재정 지원 대상과, 기준·규모·방법·기간 등이 명시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을 작성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22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

소말리아 피랍 선원

석방 교섭 진전

소말리아 근해에서 지난 5월 해적에 납치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교섭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11일 "석방 조건을 둘러싼 피랍이 선주 측과 납치단체 간의 교섭에 진전이 있어 조

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가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납치단체와 협상할 때는 의견 접근이 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암전히 나란할 수는 없다"면서 "석방 조건이 최종 합의가 되더라도 선원들 신병을 인도받는 절차까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석방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국 부자 재산, 한국 갑부의 2배

평균 8,300억…부동산 비중 30% 차지

배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반면 평균 연령은 중국부자가 48.2세로 한국 100대 부자의 평균 연령 53.3세보다 5살 적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양국 부자들의 재산은 주가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양국 부자들의 재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놀랄 만한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고 이 나라의 부동산시장 전망도 밝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부자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금융전문지 신차이푸가 선정한 중국 500대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총 재산 중 부동산 분야 재산비중이 2003년부터 선두를 차지하더니 계속 비중을 높여 올해 발표에서는 30.2%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1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영화 '화려한 휴가' 김지훈 감독과 안성기·박철민씨 등 배우들이 '오월 어머니회' 회원 등 5·18 희생자 유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의 진실’ 더 이상 왜곡 안돼"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진·배우 5·18묘지 방문

5·18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진과 배우들이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다.

이날 현장에는 '화려한 휴가'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김상경·박철민 등 10여 명이 참석, 지난 1980년 5월 18일 당시 군부의 무력 앞에 스러져간 민중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들은 또 고 김복만·김부열씨 등의 묘지 찾아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등 공식 참배 일정을 마친 뒤 광주 시내 극장 8곳을 방문해 관객들에게 무대인사를 했다.

김 감독은 "광주를 지역의 아픔으로 치우쳐 보지 말고 국가적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 전 국민이 이 영화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배우 박철민도 "이번 영화가 관객들에게 왜곡된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바로잡아주는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방문이 세 번째인 '화려한 휴가' 제작팀은 지난 5월 17일 민주화운동 20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고, 지난 7월 8일에는 현지 시사회를 가졌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남 진보단체 '일해공원' 안내판 철거

경남지역 진보단체가 전투한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명칭으로 논란이 빚어진 경남 합천 '일해공원'

의 안내판을 물리적으로 철거했다.

경남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 조합원 200여명은 12일 오후 합천군 합천읍 '일해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7월 합천군이 설치한 '일해 공원' 안내판을

이들은 이어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일해 공원'을 추진한 합천군은 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합천군은 오늘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 '일해 공원' 명칭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진보연합은 지난 3일 안내판을 떼어 낼 것을 예고하는 공문을 합천군에 보냈으나, 합천군은 전투한 전 대통령의 영상이 또렷이 남아있다"며 "군민과 도민의 혈세를 태우지 방치단체가 공적으로 이를 성역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국민증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분원 [개림동 구시청시거리] 529-8111

문제풀이 핵심요약정리+단원별 문제풀이(7월, 8월)

실전(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개강 9월 3일)

개강 8월 1일 (주, 야) www.giserom.com

• 전국 학력 1위 학원! 전국 25개 해외 학원!

•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부산·제주·부산·5년(최고 학생 배출)

• 저자 직간접 교수 전원 서울에서 출강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529-8111 개강일 전 접수바람

## 고시원 매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 5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지3억5천

• 6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지3억5천

• 6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지4억

• 7층건물 매매가 9억5천

용지3억9천

• 4층·6층건물 매매가 20억

용지6억7천

• 고수익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011-604-5239

## 크로바공연증개사

•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 앞 일산영지상가)

(대표/공연증개사 김진수)

• 상가·건물 매도

\* 금호2지구 대로변 아파트상가 1층10평 /

매12,500만원/보1,500만원/월70만원포함)

\* 금호동 부영아파트 후문 코너 3층건물 대

85평간150평 매42,000만원(보8,000만/월200만)

\* 금호동 CBS 부근상가 3층건물을 대지66평

건120평 코너 매4억원

\* 쌍용동 치평동 입구 4층로점3층건물을 대

지64평간97평 매29,000만원(보9,800만/월200만)

\* 상가 입대

\* 금호동 대로변 1층 아파트상가 15평 호프

차원 보2,000만원/보1,600만원(시·권·유)

\* 금호동 리아이티파트 몽자들 1층식당 22평 보2,000만원/월40만원(시·권·유)

\* 금호동 CBS 앞 대로변 1층상가 15평 보1,

000만원/월55만원(비·권·유)

\* 구화

\* 금호동 상가5억선 매물구함

\* 생활촌 운전저수지부근 주택 구함

\* 서구아파트 매도, 매수 및 분양문제 접수한영

\* 서구 지역 상가 전문

\* 규하의 소중한 재산 경상을 다각화했습니다!

## 산행안내